

# LG석유화학, 부타디엔 전처리 가동중단

## 부타디엔 공장 가동률 조정 ... 나프타 분해설비 및 HDPE 공정 정상가동

LG석유화학 여수 제1공장에서 8월25일 오후 5시경 폭발사고가 발생해 사망 1명, 부상 1명의 인명피해와 3000만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했다.

폭발은 부타디엔(Butadiene) 생산을 위한 전처리 공정에서 유황 제거장치의 보조축매를 교체하기 위한 준비과정 중 일어났으며, 화재는 30여분만에 진화됐으나 작업중이던 주모 씨가 사망하고 윤모 씨는 2도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LG석유화학은 부산물인 부타디엔 생산량을 확대하기 위해 2003년 7월 부타디엔 전처리 공정을 새로 설치했다.



사고가 발생한 KLP 프로세스는 혼합부탄 유분 내에 있는 이물질 제거하는 공정으로, 미량의 황이 함유돼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축매를 교체하던 중 밸브 오작동으로 반응기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확인되고 있다.

LG석유화학의 부타디엔 생산능력은 18만톤, 2003년 실생산량은 14만톤으로 12만5000톤을 자가소비하고 잉여분 1만5000톤은 수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2003년 부타디엔 매출액은 내수판매 930억9100만원, 수출액 38억5100만원으로 공시돼 수출이 4.1%를 차지했다.

한편, 부타디엔 부산물 전처리 설비에서 사고가 발생하

면서 인접한 BTX 공정도 안전상의 이유로 가동이 일시 중단됐다.

LG석유화학 공장 관계자는 “8월26일 오후 현재 BTX 공정이 정상가동에 들어갔으며, 전처리 공정을 제외한 부타디엔 생산시설과 나프타 분해설비, HDPE(High-Density Polyethylene) 공정 역시 정상가동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조인경 기자>

<화학저널 2004/08/27>